

종이겨울

교육의향



김명희
아동문학가

하루살이가 있었다. 요충에서 벗어난 하루살이가 바깥세상을 만났을 때 온갖 색들이 반짝 거렸다. 하루살이는 딱 하루만 살 수 있다. 내일이라는 것이 없다. 그런 하루살이가 내일을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길을 떠난다. 제일 먼저 새싹들이 입을 모아 내일은 아주 높은 곳에 있다고 말해 준다. 한뼘 한뼘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 꼭대기 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꽃들은 달랐다. 저 아래 깊은 곳에서 품고 있는 씨앗이 점점 자라 꽃봉오리를 피워낸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살이는 씨앗을 품고 있는 자신을 상상한다. 씨앗은 점점 자라나 구름 위까지 데려다 준다.

무엇이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하루 밖에 살 수 없는 하루살이도 내일을 만나고 싶어 하루 종일 찾아다닌다. 꿈을 꿈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하루살이에게 하늘에서 만난 꽃도 감동한다.

우리도 내일을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한다. 인공지능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부모들도 더 고전분투한다.

한때 조기교육 바람이 너무나 드세게 불어서 걸음마를 갖 떼면 아이가 한글을 배

우고 숫자를 익히고 영어단어를 외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엄마는 내 아이만 낙오되지 않는까 좌불안석해야 했다. 조기교육을 통해 얻어 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글쓰기 수업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엄마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게 하면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반성문 아니면 불만인 글이다. 죄송하다. 앞으로는 더 잘 하겠다는 등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학원을 가기 싫어하는 내용이다.

꿈과 희망을 안겨 주는 부모가 아니라 죄책감과 절망을 안겨 주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한 교실 안에서 자기표현을 잘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유독 말 수도 없고 대답도 잘 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 대부분 부모들은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기도 하고, 공부도 잘 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생일 이 되면 친구들을 초대하여 맛있는 것도 듬뿍 만들어 주고 아이들도 선물을 사와서 준다. 아이들을 위해 수고로움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감수하는 부모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현명하게 풀이할 힘을 길러 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 본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조건 사이 좋게 놀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이들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학원 몇 개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나

는 문제들을 새롭고, 가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우선이지 아닐까 싶다.

글쓰기를 종이겨울이라고 표현한다.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쓰지 않으면 아이들의 속내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쓰는 글이 아닌 자기가 쓰는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아이들이 쓴 글을 잘 살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반영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공부를 잘 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효자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아이가 효자다’ 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기는 커녕 하고 싶어하는 것조차 전혀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의견을 물어봐도 몰라요. 싫어요. 그냥요. 라는 대답은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한 아이들이 겪는 부작용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이다.

단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의 입장이 되어 보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위대한가. 그 하루살이도 자신의 내일을 찾기 위해 고전분투 하지 않던가. 그렇게 하여 찾은 내일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가 말이다.

하루살이가 수많은 내일 사이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은 스스로 내일을 찾기 위한 노력의 대가였다. 우리 아이들도 자기만의 내일을 만나길 진심으로 믿어 본다.

社說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변화 견인해 가야

귀국... “다신 떠나지 않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귀국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전부터 경제 위기와 외교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해 왔다. 그런 만큼 정치권도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5일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귀국이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과 민주당에 비전과 희망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 전 대표의 귀국 일성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는데,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는 의미였다. 그는 또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라고 했다. 2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어렵다. 저희 책임도 있어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을 하겠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

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을 잃고,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당 안팎의 위기를 수습하고, 내년 총선 준비라는 난제를 풀어 가는 것은 전임 대표에게 주어진 당연한 역할이다.

이 전 대표의 진단처럼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민심도 민주당으로는 악재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백지장도 맞들겠다’는 각오로 민주당의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대한민국의 생존방안’을 통해 수출과 경제 위기, 민주주의와 복지 후퇴, 대외관계가 붕괴된 대한민국도 견인해야 한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는 지금, 계파 갈등을 우려해 민주당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은 또 다른 도피일 뿐이다.

심장사상충 치료비 1000만원도 없는 광주

동물보호소 예산부족 중단

광주동물보호소는 약 3년 전부터 입소 동물들을 대상으로 심장사상충 검사 및 치료를 해 왔다. 전국에서 유일하다. 심장사상충은 동물의 심장과 폐혈관에 기생하는 벌레로, 감염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해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 중기를 넘어서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 감염된 동물들은 입양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 탓에 보호소에 들어와 공고 기간 10일을 넘긴 동물 중 심장사상충 감염된 개체는 안락사 우선순위에 오른다.

광주동물보호소도 여타 보호소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보호소 직원들은 최대한 안락사를 피하기 위해 ‘심장사상충’ 치료를 이어왔다. 심장사상충 치료약은 1병에 20만~30만원이 든다. 한번 맞아서 완치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투약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전체 1년 치료 예산은 1000만 원 가량이다. 그렇게 지난 3년간 보호소서 심장사상충 치료를 받은

동물들만 수백 마리다. 정성 덕인지 완치돼 건강한 모습으로 입양을 간 동물들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 치료가 돌연 멈췄다. 지난 5월부터다. 전남일보가 취재에 나서보니 돈이 없어서 라고 한다. 지난해 겨울, ‘광주 비엔날레 개농장’에 있던 개 60여 마리에 대한 구조를 진행하면서 예산 절감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들은 “예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 다른 부분에서 절약하는 게 맞다”면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광주동물보호소는 수용 제한 두배에 가까운 동물을 맡으면서 직원 1명당 약 80마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 한 마리라도 살리기 위해 운영비를 쪼개고 또 쪼갬다. 아니 기껏 확대받는 동물을 구출해 왔더니 돈이 없어서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 광역시에서 1000만 원 추가 지원조차 어렵다면 지금 광주는 매우 힘든 상황일 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냉철하게 지켜보겠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4일(현지시각)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의 한 거리에서 주민 두 명이 군 사령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바그너 그룹 병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유혈 사태를 피하고자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라고 밝혔으며 러시아는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나는 조건으로 그와 그의 군대를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AP/뉴시스

서석대

‘막장’

한때 ‘육하면서 본다’는 막장드라마가 하나의 ‘장르’처럼 유행한 적이 있다. 막장은 국어사전상의 의미로는 ‘끝장’의 잘못된 표기로 나온다. 사실 ‘막장’은 탄광의 맨 끝 부분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광부를 칭하는 말이다.

원전, 신재생 등 에너지 정책 이전의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주축은 ‘석탄’이었다. 1960~1980년대 광업은 그야말로 붐이었다. 광부 수도 많고 채탄량도 많아 세계 2위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 시절 광부들은 지하 수십, 수백미터에서 전통 하나에 의지해서 지하 갱도로 내려간 산업 전사들이었다. 채굴 도중 무너질 위험이 높은 곳인데다가 산소가 부족해, 거의 죽기 직전 상황까지 갔다는 경험담도 많다.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라도 나면 그야말로 생매장이나 다름없었다. 무너진 갱속에서 광부의 생존소식은 언론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였다.

산업화로 ‘막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118년을 이어온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화순탄광)이 오는 30일 폐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021년 12월 석탄산업 장기 계획에 따라,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화순탄광을 폐광하기로 결



정했다. 총면적 30.7km², 갱도 길이 80km의 화순광산은 산업화 시기 정부의 석탄·광업육성 정책에 따라 무연탄을 생산해 왔다.

호황기를 누리던 1960년대에는 강원 삼척·영월, 태백탄광 등과 함께 국내 4대 탄광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1989년에는 근로자 1600여명, 연간 70만5000톤의 석탄을 생산하며 최대 정점을 찍기도 했다.

폐광이 결정되면서 화순탄광 소속 근로자 270명은 실직 위기에 놓여있다. 화순군은 조선업계 등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중이다. 근로자 대부분이 용접·절단·도색 기술과 면허를 갖고 있어 관련 산업 투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광부 출신 이청리 시인은 광부의 삶을 ‘인간두더지’, ‘검은 쥐’ 등으로 표현했다. 광부는 지상의 하늘과 막장의 하늘이라는 두 개의 하늘을 이고 살아간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막장으로 가는 길목엔 이런 글귀가 써 있다. “아빠! 오늘도 무사히.”

가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갱도에서 석탄을 캐온 광부들이 막장이 아닌 또 다른 산업현장에 재취업, ‘제 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길 기원해 본다. 김성수 정치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